

제 시 카

“희망 메시지 담고 싶었다”

‘소녀시대’ 떠나 홀로서기 데뷔 9년만에 솔로앨범 남친회사에 새 등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소녀시대는 제게 소중한데, 소녀시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소녀시대를 나오는 게 두려웠어요.”

데뷔 9년 만의 홀로서기다. 지난 2014년 9월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가 17일 첫 솔로 앨범 ‘위드 러브, 제이’(With Love, J.)를 내며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4일 만난 제시카는 멤버들 없이 모든 질문을 감당하는 자리가 신인처럼 긴장된 듯 보였다.

때론 몇몇 질문에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새 출발에 대한 설렘은 충분히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홀로서기가 부담됐을 텐데.

▲ 그간 솔로는 생각해보 적지 않아 부담됐다. 응원해주는 팬들이 계속 ‘노래는 언제 할 것이나, 가수 활동은 이제 안 하는 것이나’고 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앨범은 팬들을 위한 선물로 앨범명도 데뷔 때부터 사인할 때 쓰던 문구인 ‘위드 러브, 제이’로 붙였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앨범을 계속 낼 계획이다.

- 소녀시대를 나온 이유는.

▲ 소녀시대를 나오는 게 두려웠다. 그런데 인생은 한장 한장 넘기는 책인 것 같다. 그때가 한 장이 넘어갈 타이밍이 왔던 것 같다. 원래 지나간 일에 미련 갖고 연연해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이 다 새롭고 신기하다. 예전에는 몰랐던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많이 배운 1년 반이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것 같다.

- 오해와 의혹 중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 해명은 안 한다. 오해는 때가 되면 풀린다고 생각한다. 내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더 꼬일 것 같은 느낌이다. 원래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는 편이다.

- 공교롭게도 소녀시대 티파니와 비슷한 시기에 나와 경쟁하게 됐다.

▲ 나보다 1주일 먼저 나온 티파니의 앨

범 수록곡도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도 봤다. 멋있는 것 같다. 멋있게 활동했으면 한다.

- 솔로 앨범 타이틀곡 ‘플라이’(Fly)가 자작곡이던데.

▲ 음악, 재킷 등 내가 욕심부려 다 색깔하고 싶었다. 팬들을 위한 선물이라서 재킷 속지 가사까지 편지처럼 자필로 썼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싶었다.

- 그간 도도한 이미지의 ‘얼음 공주’로 불렸는데 타이틀곡 등 전반적인 콘셉트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살면서 누구나 슬럼프에 빠지고 힘든 일이 있는데 ‘괜찮다, 꿈을 꾸고 그 방향대로 가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내가 어두운 노래를 할 것으로 예측했을 텐데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 팬들도 나와 함께 마음 고생을 하며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웃음)

- 이번 앨범으로 얻고 싶은 평가는.

▲ ‘제시카 같다’는 평가다. 음악 색깔, 재킷 속 화보, 뮤직비디오까지 딱 나 같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나만의 색깔을 갖고 싶다.

- 남자 친구가 설립한 기획사에 등지를 든 이유는.

▲ 다른 기획사의 제안도 받아 부모님과 상의했다. 자유롭게 내 음악 색깔과 활동을 지지해주고 보살피줄 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지금 기획사가 음악과 해외 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주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도 됐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기에 믿음이 갔다.

- 결혼설까지 나온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다.

▲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나 3년간 사귀었다. (결혼은) 발표한 게 아니니 ‘설’이지 않겠나. 주위 친구들이 결혼해 부럽기도 하고, 여자라면 결혼을 생각할 테니 때가 되면 하지 않겠나.

- 패션 사업은 잘되고 있다.

▲ 생각보다 잘 된다. 처음에는 취미로 작게 할 생각이었다. 구멍가게처럼 내 공간에 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많이 찾아주셔서 여러 나라에 입점했다. 행운이다. /연합뉴스

‘팔색매력’ 에릭 ‘또 오해영’서 케미 작렬

짜장면 점프·도움닫기 포옹 화제



에릭(본명 문정혁·37)은 걸출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는 아니다. 그러나 TV 드라마에서 여주인공과 어울리는 ‘케미’(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케미스트리’의 준말)는 또래 남자 연기자 중에서 손꼽힐 정도다.

에릭의 매력은 tvN 월화드라마 ‘또 오해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에릭은 평범한 오해영(서현진 분), 예쁜 오해영(전혜빈)과 얽히는 음향감독 박도경을 연기한다.

‘또 오해영’ 기자회견회에서 만난 에릭은 스스로도 ‘심공’(심장이 쿵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내일모레면 사십이예요. (웃음)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케미) 비결이라면 박해영 작가가 여자 마음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써주는 대로 연기하려고 하는 거구요.”

에릭은 화제가 된 서현진과의 ‘짜장면 점프’ 장면에 대해 처음에는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했다”고 답했

다가 곧바로 서현진으로부터 타박을 들었다.

“대본에 ‘들어오다가 무엇인가를 밟고 빠듯한다’고 돼 있기에 애매모호하게 빠듯하면 그림이 잘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싶어서 한 번 날아봤어요.”

에릭은 시청자를 포복절도하게 한 ‘도움닫기 포옹’ 장면에 대한 활영 뜻이아기도 소개했다.

해가 떨어진 다음 시작된 해당 장면의 촬영은 다음 날 해가 뜰 때 끝났다. 서현진은 9시간 반 동안 와이어에 매달린 채 공중에 떠 있어야 했다.

에릭은 “서현진은 와이어 촬영이 처음인데 저는 ‘신화’로 활동할 때 종종 와이어 촬영을 한 적이 있다”면서 “와이어에 30분만 매달려도 가랑이가 아파서 화가 나는데 서현진이 계속 웃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엄태웅·김아중·지현우 주연 스릴러 드라마 ‘원티드’ ... 내달 방영

김아중(34)과 엄태웅(42), 지현우(32)가 오는 6월 방송 예정인 SBS TV 수목드라마 ‘원티드’에 출연한다고 SBS가 16일 밝혔다.

‘원티드’는 국내 최고의 여배우 정혜인이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생방송 쇼에서 범인의 요구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스릴러 드라마.

김아중이 여배우 정혜인 역을 맡았고, 엄태웅이 첫사랑 혜인을 돕는 케이ابلTV PD 신동욱을 연기한다. 지현우는 강남경찰서 소속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는 열혈 형사 차승인 경위 역을 맡았다.

제작진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한 톱스타의 절절한



〈엄태웅·김아중·지현우〉

모성에, 회를 거듭할수록 치밀해지는 혜인과 범인의 두뇌 게임이 시청자의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drama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음 4월 12일 庚子)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ediction. Provides daily horoscope readings for each zodiac sign.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